

부처님오신날 봉축 꽃 예술전

불기2560년 부처님 오신 뜻을 봉축하며 한국불교 연화꽃꽃이 연합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불교 꽃꽃이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만인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정겹고 웃음 넘치는 축제입니다. 더욱이 종교화합을 목적으로 천주교 원 불교 불교 성직자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꽃을 통하여 화합의 문을 열어가고 있기에 깊은 인연과 더욱 큰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연화 꽃꽃이 연합회 꽃 예술전을 통해서 모두가 차별없이 하나되는 꽃향기와 같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불교에서 꽃 공양은 귀의와 존경의 표시로 꽃을 올리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전승하여 왔습니다. 꽃은 수행과 장엄, 그리고 찬탄을 나타내며 우리 중생들도 성취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야 한다는 수승한 가르침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원력으로 삼아 꽃문화 포교에 앞장서며 중생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보명스님과 올해로 뜻 깊은 30주년을 맞은 연화꽃꽃이 연합회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동하는 기운이 넘치고 향기로운 인연이 가득한 오늘,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하신 천주교 수녀님과 원불교 교무님, 그리고 스님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불교 꽃 문화 포교에 아름다운 장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승